

전북문화 페이스메이커 역할 '톡톡'

전주소리축제, 국내 우수기관과 맞손... 프로그램 다채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국내 우수의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다채롭고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관객 맞이에 한창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역은 물론 국내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과의 개방적이고 활발한 협력을 통해 콘텐츠의 풍성함을 더하는 동시에 소리 축제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먼저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북도립국악원의 대형 창극 '민세배 더듬전' 이 소리축제에 통해 초연된다.

또 전주문화재단 전주마당 창극 '진짜 진짜 옹고집' 역시 축제 현장에서 색다른 분위기로 관객들을 만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진행하는 '청춘마이크 사업'에 선정된 팀들도 축제 기간 레드콘 스테이지를 통해 무대 기회를 얻는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공연팀들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공동기획으로 '아트스테이지 소리 플러스(불빛간 사춘기, 정준일 출연)'가 마련되며, CBS 전북과는 올해도 어김없이 '별빛 콘서트'를 통해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한다.

조직위는 이 같은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 기관이 진행되는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 문화에 활력을 더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는 축제를 방문한 외부 관객들과 전북도민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접하고, 우수한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도에서다.

이와 함께 국내 문화예술 기관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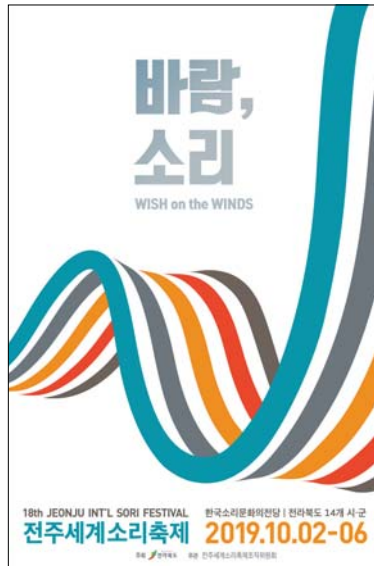
특히 올해는 영등포문화재단과 국립국악원 등 외부 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소리축제 프로그램을 축제 후에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조직위는 지난 7월 영등포문화재단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오는 10월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월드뮤직 로드' 무대에 소리축제 일부 해외 프로그램이 초청됨으로써 협력사업의 첫 포문을 연다.

이번 협력은 해외 네트워크와 월드뮤직 축제로서 숙련된 노하우를 가진 소리축제에 재단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성사됐다.

앞으로 어린이 및 국내 공연 등 프로그램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국립국악원과는 오는 10월 소리축제



의 해외 레지던시 사업인 '아시아 소리 프로젝트 2019'와 해외 프로그램 등을 다시 한번 무대에 올린다.

이번 축제는 오는 10월 2~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도에 14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송호철 기자

우리 모두 함께 승리!

내달 4일 태권도원서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19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가 9월 4일 오전 11시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개최된다.

'2019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 (이하 기념행사)는 내년 도쿄 올림픽 태권도 경기의 선전과 화합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경기 성공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기념행사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차관, 태권도 9단 이동섭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문대성 전 IOC위원 등을 비롯해 정부, 국회, 태권도 기관·단체, 지자체 주요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기념행사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시범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태권도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태권도에 바라는 국민들의 영상 등이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이 함께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의 선전을 응원하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태권도의 날'은 지난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



계태권도연맹이 2006년 7월 25일 정기총회에서 9월 4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우주=전문선 기자



김제시와 금산사가 29일 김제시시장실에서 김제시민 대상으로 금산사 템플스테이 50%할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금산사, 템플스테이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금산사는 29일 김제시시장실에서 김제시민 대상으로 금산사 템플스테이 50%할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김제시와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김제시민의 금산사 템플스테이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식을 진행하

게 되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매일 운영되는 휴식형과 주말에 운영되는 주말체험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1일차 오후 3시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오후 1시에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김제시민 대상 성인기준 휴식형 5만원, 주말 체험형 6만원의 금액을 50% 템플스테이 요금 할인으로 김제시민의 템플스테이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김제시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국보 62호 금산사 미륵전에서 이루어지는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단순 종교적 차원을 넘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선조들의 지혜와 생각을 엿볼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할인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곽태 기자

역사문화도시 익산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다

익산시, 시민참여형 설문조사 실시
'시민 상상담' 이벤트도 함께 진행

익산시는 '역사문화도시 익산'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익산근대역사관에서 시민참여형 설문조사를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에 살고 있는 시민 스스로 문화도시를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익산의 과거, 현재를 자신의 시점에서 살펴보고 익산의 미래를 상상하며 시민들의 의견으로 문화도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설문조사는 나와 익산, 익산의 유산, 익산의 기억, 나와 익산의 미래, 문화도시 익산 등 5개 항목이며, 야외광장과 실내전시관을 관람하며 설문용 미션카드와 예산침을 이용해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물을 쌓으며 소망을 기원하는 것

처럼 개인이 사용하던 그릇, 접시, 컵 등 시민들의 생활이 담긴 물건들을 가져와 담을 쌓는 '익산시민 상상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역사가 나의 오늘과 연결되는 문화도시 익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과 익산 시민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법적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온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문화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면검토를 통과하여 오는 9월 도시현장검토 및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

문화도시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최대 2백억원이 지원된다. 2019년 현재 전국 25개 지자체가 신청한 상태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